



기획 연재

孝와 烈에 관한 瞑想 ⑥

權 五 焄
本紙 편집인

153 구령집법九齡執法

당唐 현종玄宗이 변왕藩王[황자로서 번국藩國을 봉지封地로 하여 책봉된 왕]으로 있을 때 조려비趙麗妃[여비 조씨]는 태자太子 영瑛을 낳고 황보덕의皇甫德儀[덕의 황보씨]는 악왕鄂王 요瑤를 낳고 유재인劉才人은 광왕光王 거를 낳았다. 그리고 즉위해서는 무혜비武惠妃[혜비 무씨]를 총행寵幸하여 수왕壽王 모瑁를 낳으니 여비 조씨 등에 대한 현종의 사랑이 해이해졌다.

태자 영과 악왕 요 및 광왕 거가 원망하는 말이 있자 부마駙馬 양희楊 가 늘 세 황자의 과실을 엿보다가 이를 혜비 무씨에게 고하였고 혜비가 황제에게 이를 읍소泣訴로 고자질하니 황제가 노하여 세 황자를 모두 폐廢하려 하였다. 이에 중서령中書令 장구령張九齡이 아뢰기를 ‘ 폐하의 자손이 번창하니 천하가 바야흐로 경사스러워하는데 지금 세 아드님이 큰 과실이 있다고 듣지 못했거늘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근거없는 말로 폐하려 하십니까. 옛적에 진현제晉獻帝가 여희驪姬의 참소를 듣고 공세자恭世子를 죽여 3세에 걸쳐 대란이 일어나고 한 무제漢武帝가 강충江充의 무고誣告를 믿고 여태자戾太子를 죄주어 경성京城이 유혈流血하였으며 진 혜제晉惠帝가 가후賈后의 참언을 채용하여 민회태자愍懷太子를 폐해서 중원中原이 도탄에 빠졌고 수 문제隋文帝가 독고후獨孤后의 말을 들어 태자 용勇을 내쫓고서는 마침내 천하를 잃었습니다. 그런즉 신은 감히 조명詔命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 하니 황제가 좋아하지 않았다. 혜비가 사람을 시켜 장구령에게 말하기를 ‘ 폐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흥하는 게 있으니 공이 후원해 준다면 재상으로서 오래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 하니 장구령이 그를 꾸짖어 물리치고 그 말을 황제에게 가서 아뢰었다. 그러자 황제의 낯빛이 움직이더니 장구령을 파직시키려던 것을 그쳤고 태자도 무사하게 되었다.

장구령張九齡은 당의 곡강曲江 사람으로 자는 자수子壽이며 중종中宗 때 진사進士가 되어 상서우승상尙書右丞相에 이르렀다. 이임보李林甫의 세력을 누르려다 오히려 파직되었는데 그 문학이 당대 제일이고 곡강공曲江公으로 불리면서 저서 곡강집曲江集을 남겼다. 사후에 문헌文獻의 시호를 받았다.

제목 구령집법九齡執法是 장구령이 정법正法을 고집해 지켰다는 말이고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폐행교참오국저嬖倖交讒誤國儲 : 폐신嬖臣과 총희寵姬가 갈마들며 태자를 참소하는데

구령하행재중서九齡何幸在中書 : 장구령이 다행스레 중서령으로 있어

역진전대쇠망적歷陳前代衰亡跡 : 전대의 쇠망한 자취 펼쳐 아뢰니
은감분명가홀제殷鑑分明可忽諸 : 은나라 거울 분명하여 홀연히 바뀌졌네
담리감언고가수 利甘言固可羞 : 이 곳과 감언으로 꾀은 실로 수치라
의연엄질저간모毅然嚴叱沮姦謀 : 의연히 크게 꾸짖어 간사한 음모 막고
당시득보저황위當時得保儲皇位 : 때를 당하여 태자의 위를 안보케 됨은
지위충성동면류只爲忠誠動冕旒 : 다 만 충성이 면류관을 움직인 때문일레.

국저國儲는 나라의 저축이라는 본뜻으로 임금자리를 장차 잇게 될 황태자나 왕세자를 이른다. 은감殷鑑은 은나라의 거울이라는 뜻인데 은나라가 쇠망한 전철을 거울삼아 본다는 뜻으로 생긴 말이다. 면류관冕旒冠은 옛날 임금 또는 대부大夫 이상의 귀인이 조의朝儀나 제례 때 입는 정복에 갖추어 쓰던 모자로 거죽은 검고 속은 붉으며 위에는 장방형의 판이 놓이고 판 앞으로 늘인 끈을 유旒라 하고 거기에 주옥을 꿰었으며 임금은 12류, 제후는 9류, 상대부上大夫는 7류, 하대부는 5류를 달았다.

154 이로서위李盧死位

중국 당唐나라 때 안녹산安祿山이 동경東京을 함락하자 유수留守 이징李 登이 어사중승御史中丞 노혁盧 에게 ‘ 우리가 나라의 무거운 임무를 지고 있으니 비록 힘으로 대적할 수 없음을 알지만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 하니 노혁이 허락하였다. 이징이 잔병 수백을 수습하여 싸우고자 하였으나 모두 허물어져 흩어졌다.

이징이 부중府中[관청의 집무처]에 좌정하니 노혁은 처자를 먼저 보내 회인懷仁의 사잇길로 정안長安으로 달려가게 하고 조복朝服을 갖춰 입고 대중臺中[장수의 집무처]에 좌정하니 안녹산이 사람을 시켜 잡아다가는 둘 다 죽였다. 이때 노혁이 안녹산을 매도하며 그 죄를 낱알이 따지면서 도적의 무리를 돌아보며 가로되 ‘ 무릇 사람된 자는 마땅히 역逆과 순順을 아는 바이니 내가 죽어 절조를 잃지 않는데 대저 무슨 한이 또 있겠는가 ’ 하였다. 숙종肅宗이 뒤에 조명詔命으로 이징에게 사도司徒를 추증하고 충의忠懿로 시호를 내렸으며 노혁에게는 예부상서禮部尙書를 추증하고 정렬貞烈의 시호를 내렸다.

안녹산安祿山은 당의 영주營州 유성柳城의 호족인胡族人으로 본성은 강康, 초명은 아락산阿 山 또는 알락산軻山이다가 개가하는 어머니를 따라가 안씨 성을 썼다. 교활하면서 6개의 번어蕃語에 능통하였고 편장偏將으로 발탁되어 현종玄宗 때 평로절도사平盧

節度使로 주대奏對한 내용이 좋아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범양절도사 겸하북채방사范陽節度使兼河北採訪使가 되었다. 양귀비楊貴妃의 양자가 되고부터 역심을 품기 시작하여 운중태수雲中太守·하동절도사河東節度使로 삼도三도를 겸제하면서 군대의 증강과 사유화를 도모하였다. 양국충楊國忠과 반목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장안長安을 점령하여 웅무황제雄武皇帝라 자칭하고 국호를 연燕, 연호를 성무聖武로 하였으나 이듬해 장남 안경서安慶緒와 이저아李 兒에게 살해되었다.

이징李 登은 당의 병주并州 문수文水 사람으로 명경과明經科를 하여 청하태수清河太守·광릉장사廣陵長史가 되어 선정을 베풀어 생사당生祠堂이 섰으면 경조운京兆尹을 지낼 때 안녹산의 반란이 일어나 성을 지켜 예부상서禮部尙書로 발탁되었으나 성이 함락된 후 피살되었다.

노혁盧 은 이름을 혁奕으로도 쓰며 근중謹重하고 욕심이 적은 것으로 이름났다. 처음에 호현령 縣令으로 치적을 올려 거듭 천직한 끝에 어사중승御史中丞에 이르러 안녹산의 난을 만났다. 제목 이로서위李盧死位는 이징과 노혁이 죽음으로써 그 지위를 지켰다는 뜻이고 그 찬시讚詩는 다음과 같다.

조지병소역난지早知兵少力難支 : 일찍 적은 병력으로 지탱키 어려움 알고
부주투생서불위負主偷生誓不爲 : 임금 등지고 도망쳐 살지 않기로 맹세하여

징형상규개사위 登 相規皆死位 : 이징과 노혁 서로 살피며 제 위치에서 죽으니

쌍청절의숙린치雙淸節義孰 緇 : 쌍벽의 맑은 절의 누가 세속에 물들었나
이자종용와부대二子從容坐府臺 : 두 사람 조용히 부중과 대중에 앉아
개지사절부하애皆知死節復何哀 : 절개에 죽을 줄 아니 무엇이 애처로운가
능연의열비요예凜然義烈非要譽 : 능연한 의열은 기림도 바라지 않지만
한죽향명유자래汗竹香名有自來 : 청사에 향기로운 이름 절로 따라왔다네.

155 안원매적顏袁罵賊

당 현종唐玄宗 때 안녹산安祿山이 난을 일으켜 고성蘘城에 이르니 상산태수常山太守 안고경顔 卿이 힘으로 항거할 수가 없음을 알고 장사長史 원이겸袁履謙과 더불어 나아가서 영접하였다. 안녹산이 금자金紫[금 도장과 자주 빛 인끈으로 재상의 상징]를 안고경에게 하사하였다.

돌아오는 도중에 안고경이 스스로 입은 옷을 가리키며 원이겸에게 ‘ 어찌 이것을 착용하리오 ’ 하니 원이겸이 그 뜻을 깨닫고 악녹산을 토벌할 모사를 하였다. 군사를 일으켜서 겨우 8일에 수비가 아직 완성되기도 전에 안녹산의 장수 사사명史思明과 채희덕蔡希德이 군사를 이끌고 성 아래에 이르렀다. 그리고 안고경이 밤낮으로 항전하였으나 식량과 화살이 다하여 성이 마침내 함락되니 적은 안고경과 원이겸 등을 잡아 가지고 낙양洛陽으로 압송하였다.

낙양에 이르자 안녹산이 죄를 따져 묻기를 ‘ 내가 상주上奏하여 너를 판관判官이 되게 하고 몇 년이 안되어 태수를 추수超授케 하였는데 어찌하여 나를 등지고 배반하느냐 ’ 하니 안고경이

꾸짖었다. ‘ 네가 본래 영주營州에서 양을 치던 갈노①奴[흉노匈奴와 동족의 오랑캐]인데 천자께서 너를 발탁하여 삼도절도사三道節度使를 삼으셨으니 받은 은행恩幸이 비할 바 없거늘 어찌 네 스스로를 등지고 모반하느냐? 나는 대를 이은 당의 신하이니 비록 네가 상주한 바라 할지라도 어찌 너를 좇아 모반하겠느냐. 내가 나라를 위해 도적을 토벌하여 네 목을 베지 못하는 것이 한인데 어찌 모반을 말하느냐. 조갈구①狗[누린내나는 갈노의 개]가 어찌 나를 속히 죽이지 않느냐 ’ 하였다.

안녹산이 크게 노하여 그를 원이겸과 함께 결박하여 과실隄殺[살을 도려내 죽임]하였는데 두 사람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꾸짖는 입을 다물지 않았다. 그리고 안씨顔氏로서 죽은 자가 30여인이었다.

안고경顔 卿은 자사刺史 원손元孫의 아들로 자가 현昕인데 처음에 수주사법참군遂州司法參軍이 되었고 안녹산이 범양范陽을 진수할 때 가상산태수假常山太守가 되었다. 안녹산이 모반하자 그 가자假子 이흠주李欽湊를 책살策殺하고 적장 고막高邈 등을 잡아 서울로 압송하여 위위경衛尉卿 겸 어사중승御史中丞이 되었으나 안녹산의 본군과 항전하다 패하여 피체되었다. 안녹산을 꾸짖다가 천진교天津橋 기둥에 묶여 신체의 마디가 잘리고 그 살이 안녹산에게 먹혔다. 그래도 안고경이 꾸짖기를 그치지 않으니 적이 그 혀를 갈고리로 잡아빼 자르고 그래도 욕을 하겠느냐고 하니 목구멍소리를 내다가 죽었다. 뒤에 충절忠節의 시호를 받았다.

원이겸袁履謙은 당의 현종玄宗 때 상산장사常山長史로서 태수 안고경과 함께 안녹산의 모반에 항적하여 상산태수太守가 되었으나 적장 사사명史思明등에게 패하여 수족이 잘리고 살이 저며져서 죽었다.

사사명史思明은 원래 영주이寧州夷로써 돌궐인突厥人이고 이름은 술간干인데 당현종이 사명으로 사명賜名하였다. 안녹산의 반란에 그 장수가 되어 하북河北을 점거하였고 안녹산이 그 아들 안경서安慶緒에게 피살하자 안경서를 살해하고 스스로 대연황제大燕皇帝라 칭하였으나 얼마 안가 그도 아들 사조의史朝義에게 피살했다.

제목 안원매적顏袁罵賊은 안고경과 원이겸이 도적을 꾸짖었다는 뜻이고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고경충의상천자 卿忠義上天知 : 안고경의 충의 하늘에서 알고 있는데
금자광화지기이金紫光華志豈移 : 금자광채의 영예에 지조 어찌 옮기리오
뇌유이겸능오의賴有履謙能悟意 : 원이겸에게도 힘입어 능히 깨달으니
동심보국임신위同心報國任身危 : 한 마음으로 나라에 보답코자 몸을 위태로움에 맡겼네
육토간흥기의병欲討姦兇起義兵 : 간흉을 토벌코자 의병을 일으켰으나
역궁성함경무성力窮城陷竟無成 : 힘이 다해 성이 함락되니 끝내 이름이 없네
충간격렬과유매忠肝激烈鷙酒罵 : 충성의 솟구침 격렬하여 살을 발라내도 꾸짖으니

청사소수불후명靑史昭垂不朽名 : 청사에 이지러지지 않는 이름 밝게 드리우네.